

研究論文

선교사와 오리엔탈리즘: 일제시대 어느 천주교 선교사의 조선 스케치*

조 현 범**

I. 머리말	III. 詞句印을 통해 본 學藝 思想과 人生觀
II. 生涯	IV.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 사회는 서구 열강과 일제의 물리적, 정신적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과 순응의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근대 세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인들은 정치적, 군사적 침략의 필요, 혹은 상업적, 학술적 관심 등 다양한 목적에서 당시 조선 사회를 묘사하거나 분석하는 보고서나 여행기들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기록들이 서구 사회에 소개되면서 극동 아시아에 위치한 은둔의 왕국 조선에 대한 정보가 널리 퍼지는 데 일조하였다.

물론 서구인들의 기록에 등장하는 조선 사회의 이미지가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들이 많다. 제한된 정보량과 서구 우월주의적인 선입견 때문에 조선을 극단적으로 왜곡하는 서술도 상당히 발견된다. 특히 상이한 문화 전통에 토대를 두고 있는 조선 사회의 종교문화를 기술할 때에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서구인들이 남긴 조선 사회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50-A00009)

** 한신대학교 한신학술원 연구교수, 종교학

에 관한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

하지만 보는 시각을 약간 달리하여 동아시아와 서구라는 두 문화권이 접촉하면서 발생한 교차문화적(crosscultural) 인식의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서구인들의 조선 관계 기록들을 검토한다면, 기존의 자명한 가치 체계 속에서 서술되지 못했던 요소들이나 특정한 문화적 논리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변형된 조선 이미지를 재발견할 수 있다. 특히 천주교나 개신교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하여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조선의 문화, 관습, 종교, 민속에 관해서 묘사하거나 서술한 서구인들의 기록들에는 비교종교학의 입장에서 충분히 분석할 가치가 있는 다량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의의에 비해서 19세기 이후 서구인, 특히 선교사들이 작성한 조선 관계 기록들을 발굴하고 분석하는 연구 분야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한 편이다.¹⁾

이 글은 20세기 초엽 조선에 와서 살았던 어느 프랑스 선교사의 기록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이 기록에 담긴 당시 조선 사회와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셉 카다르스(Joseph Cadars, 1878~1950)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인물의 생애와 이력은 조선 천주교회가 중요한 고비를 맞았던 지점들과 자주 맞물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남긴 기록들은 일제 시대와 해방 직후 조선 천주교회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서양인 선교사들의 기록에 나타난 조선 관련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카다르스 신부의 기록 중에서도 조선의 문화와 관습 및 종교에 관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선교사들의 조선 관계 기록들을 다룬 연구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남긴 조선 문화에 관한 기록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신형식, 「일제 초기 미국 선교사의 한국관」, 『일본 식민지 지배 초기의 사회분석 1』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1987); 이필영 「초기 기독교선교사의 민간신앙 연구」, 한남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편 『서양인의 한국문화 이해와 그 영향』한남대출판부(1989); 손정숙, 「구한말 험버트의 대한인식과 그 활동」, 『이화사학 연구』22집(1995) 등이 있다. 그리고 천주교 선교사들의 조선 인식을 다룬 연구로는 최석우, 「제한 천주교 선교사의 한국관과 선교정책」, 『한국근대종교사상사』원광대학교 출판부(1984); 김정옥, 「박해기 선교사들의 한국관」, 『교회사논문집Ⅱ』한국교회사연구소(1985); 여동찬, 「개화기 불란서 선교사들의 한국관」, 『교회사연구』5집(1987) 등이 있다. 선교사를 포함하여 서구인들의 조선 관련 기록을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정연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서양인의 한국관」, 『역사와 현실』34호(1999)가 있다.

이하에서 서술할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러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카다르스 신부의 생애와 행적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프랑스 본국에서 발행된 선교 잡지에 기고하였던 글의 전체 목록을 제시하고, 집필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카다르스 신부의 글 가운데에서 특별히 분석할 가치가 있는 두편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1909년에 작성한 「조선의 농경 축제」와 1912년 무렵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여행기」가 그것이다. 카다르스 신부가 기고한 글들은 대략 30여 편인 것으로 집계되며 시기적으로도 일제 시대 전 기간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위에서 말한 2편의 글에 조선 사회의 유교 문화와 토착 관습에 대한 관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다. 아마 조선에 입국한 초기였기 때문에 낯선 지역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였던 탓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 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개괄한 다음에, 저자인 카다르스 신부는 과연 어떤 자료와 정보를 참고하여 그러한 글을 기술하였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카다르스 신부의 글을 통해서 볼 때, 선교사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 태도를 ‘선교사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틀로 설명하는 문제 설정에는 약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이 개항 및 일제 시대 서양인들의 조선 인식을 비교종교학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데 작은 발판으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카다르스 신부의 생애와 활동

조셉 카다르스²⁾ 신부는 1878년 9월 27일 프랑스 남부 알비 교구의 타른(Tarn) 현 발랑스(canton de Valence)면에 위치한 레다스(Lédas)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초등 교육과 중등 교

2) Cadars라는 이름은 여러 연구서나 번역서마다 제각기 달리 표기되고 있다. ‘까닥스’(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편, 『교구연보 1878-1940』[천주교부산교구, 1984]), ‘카닥스’(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천주교 전주교구, 1998]), ‘카다스’(최석우, 『한국교회사의 탐구 III』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까다르’(셀레스뎡 꼬요스, 『죽음의 행진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분도출판사 1983)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의 한국식 이름은 강달순(姜達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카다르스’로 표기하였다.

육을 거치면서 인문적인 교양 교육을 충실히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³⁾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소속 교구인 알비 교구의 대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05년 6월 24일에 교구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⁴⁾

고향의 본당 사제로 근무하다가 1907년 9월 17일에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선교사 교육을 받았다. 1908년 9월 18일에 당시 신학교 교장이었던 플뢰리(Fleury) 신부로부터 조선 선교지로의 발령 서한을 받고, 파리로 돌아와 1908년 11월 18일에 출발 의식을 치른 후에 조선으로 출발하였다 마르세이유 항구를 떠나서 2개월만에 부산에 도착한 카다르스 신부는 기차로 조선 남부 지역을 관통하여 1909년 1월 31일 서울에 도착하였다.⁵⁾

3개월 동안 서울에서 머문 뒤에 전라남도 나주군 노안면의 계량 마을로 발령받아 5월 1일에 임지로 출발하였다. 이 지역은 원래 투르뇌(Tourneux) 신부가 관할하던 곳이었다. 1909년 4월 말에 있었던 사제 피정을 계기로 뫼텔 주교는 각 신부들이 맡은 임지와 보직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투르뇌 신부는 목포로 발령받았고, 투르뇌 신부가 맡았던 계량 본당에는 카다르스 신부가 파견되었던 것이다.⁶⁾ 투르뇌 신부와 함께 출발한 카다르스 신부는 1909년 5월 13일 계량 마을에 도착하였다.⁷⁾ 그 후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총동원령이 내려지기까지 약 5년 동안 이 곳에서 사목 활동을 하였다.⁸⁾ 그는 뛰어난 문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전교지』에 기고한 글들이 독자

3) 카다르스 신부는 각종 선교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일리아드』나 『오딧세이』의 구절들을 종종 인용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자주 번역하였던 내용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Cadars, “Les Premières Impressions d’un Missionnaire”,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1910, p. 398.)

4) <http://archivesmep.mepasie.org/recherche/notices.php?numero=2994&nom=Cadars> 참조. 최근에 들어서 파리외방전교회 회원 명부를 다시 정리한 고문서고 담당자 무세(Moussay) 신부의 연구에 따르면, 카다르스 신부의 사제 서품일은 1906년 6월 14일이라고 한다.

5)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뫼텔 주교 일기 4』 한국교회사연구(1998), 353 쪽

6) 위의 책, 374쪽

7) 1908년 9월 18일에 조선 선교지로의 발령 서한을 받은 뒤부터 1909년 5월 13일 계량 마을에 도착하기까지 카다르스 신부의 여정은, 리용에서 발간되던 주간 선교잡지였던 『가톨릭 전교지』에 기고한 기행문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Cadars, “De France en Corée”, *Les Missions Catholiques*, 1914, pp. 380-428.)

8) 그 사이에 전남 나주 지역은 1911년 4월에 신설된 대구 교구 관할로 이전되었다

들로부터 대단한 성원을 받아서 상당한 기부금을 모아 성당을 신축하였다.⁹⁾

1914년 8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프랑스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지자, 조선의 프랑스 선교사들 중에서도 동원 연령에 해당하는 선교사들에게 동원령이 통보되었다. 당시 대구 교구에 소속되어 있던 카다르스 신부 역시 이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카다르스 신부는 프랑스로 귀국하지 않고, 베트남의 톤킨에 있던 프랑스 극동 사령부에 배속되었다. 곧 중위로 진급한 그는 류머티스로 판정을 받아 실제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고, 톤킨의 원주민 보병 부대와 함께 중국 천진으로 가서 근무하였다.

1918년에 블라디보스톡 부근에 재배치되었다가 종전을 맞았으며 1919년 3월 11일에 소집에서 해제된 카다르스 신부는 압록강을 건너서 1919년 3월 19일에 대구교구로 귀환하였다.¹⁰⁾ 1920년 7월경 파리외방전교회 대의원회의에 참석차 로마에 가 있던 드망쥬 주교를 대신하여 부주교 베르모렐 신부가 주최한 인사이동에 따라서 카다르스 신부는 전북 완주군 화산면의 되재 본당¹¹⁾으로 전임되었다.¹²⁾ 2년 동안 되재 본당에서 근무한 카다르스 신부는 1922년 5월에 나바위 본당으로 옮겨서 1929년까지 근무하였다.¹³⁾

카다르스 신부가 나바위 본당의 주임 신부로 근무하던 중이었던 1925년 강경 공립보통학교에서 식민지 조선에서는 최초로 신사참배 거부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학생들은 나바위 본당 소속의 천주교 신자들이었으며,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된 데에는 카다르스 신부의 영향 내지 지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일로 학생들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되고, 사건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신문 지상에 보도되면서 상당한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다.¹⁴⁾

9) 드망쥬, 「1912년 보고서」, 천주교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편 『교구연보 1878-1940』천주교 부산교구 (1984), 26쪽.

10) Cadars, "Retour à Keiryang d'un Missionnaire Mobilis é", *Les Missions Catholiques*, 1920, p. 54.

11) 현재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에 위치한 고산성당의 전신이 되재 본당이다.

12) 드망쥬, 「1920년도 보고서」, 천주교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90쪽.

13) 나바위 본당은 현재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에 소재하고 있다. 넓은 평야 지대를 끼고 있으며 바로 인근에 1925년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하였던 강경이 자리잡고 있다.

14) 1925년 강경 공립보통학교에서 발생한 신사참배 사건의 경위와 시말이 어떠하였으며 카다르스

1929년 왜관으로 발령받은 카다르스 신부는 1930년에 은경축을 맞이하여 프랑스로 귀환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931년에 조선으로 돌아와서 경주 본당을 맡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었던 1945년 4월에 대구 교구 소속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대구에 연금당할 때까지 카다르스 신부는 15년 동안 줄곧 경주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하였다.

해방 후 대구와 서울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모두 모여서 대전에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였지만, 백내장 수술로 한 눈을 실명한 그는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고 대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1949년 캐나다 프란치스코 수도회 회원들이 카다르스 신부에게 대전에 있던 수도원 건물의 관리를 부탁하여 대전으로 옮겨왔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이 수도원 건물에는 정치보위부가 들어섰고, 곧 감옥으로 변하였다.¹⁵⁾ 7월 21일에 카다르스 신부는 수도원에 남아 있다가 북한군에게 체포되었다. 1950년 8월 20일에 서울로 이송되었다가, 다시 평양과 만포를 거쳐 압록강 부근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주한 교황 사절 번(Byrne) 주교와 비에모(Villemot) 신부, 공베르(Gombert) 신부 형제, 코요(Coyos, 구인덕) 신부 등 동료 신부들과 상봉한 카다르스 신부는 70대의 노구를 이끌고 1950년 10월부터 이른바 ‘죽음의 행진’에 끌려갔으며, 1950년 12월 18일 중강진 부근의 하창리 수용소에서 탈진하여 사망하였다.¹⁶⁾

신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정동훈,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 천주교회와 신사 참배에 관한 고찰」, 『교회사연구』 제11집(1996), 63-68 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도 카다르스 신부가 1925년 『가톨릭 전교지』에 기고한 「어린 신앙 고백자들」이라는 글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연구는 1930년대 신사 참배 문제에 주된 논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강경 사건은 전사(前史)로서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카다르스 신부의 글 전반부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일본의 신도(神道)와 신사참배(神社參拜)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입장이 잘 정리되어 있는 만큼, 1920년대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일본의 신도라는 종교와 신사 참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다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5) 윤선자, 「한국전쟁과 교회의 피해」, 한국사목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2001), 163 쪽

16) 이 ‘죽음의 행진’에 끌려 간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 중 코요 신부 1명만이 생존하였다. 셀레스뎡 꼬요스, 『죽음의 행진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분도출판사(1983) 참조

III. 카다르스 신부의 조선 스케치

카다르스 신부는 조선에 입국한 1909년부터 경주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벌이던 1945년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의 편지를 본국으로 보내어 『전교회 연보』(*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가톨릭 전교지』(*Les Missions Catholiques*), 『파리 외방전교회 연보』(*Annales de la Société des Missions-Etrangères de Paris*), 『파리외방전교회 회보』(*Bulletin de la Société des Missions-Etrangères de Paris*) 등에 기고하였다. 특히 프랑스 리용에서 발간되던 주간 『가톨릭 전교지』에 고정적으로 글을 기고하여 많은 독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은 바 있었다. 그는 약 30 여 편의 글을 기고하였던 것으로 추산되며, 그 중에서도 8편은 5회 이상 분할 연재할 만큼 장문의 글이었다. 이 글들 속에서 카다르스 신부는 처음 프랑스를 출발하여 조선으로 입국하기까지의 여행기, 자신이 맡았던 본당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대한 관찰 기록, 새로운 신자들의 입교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 조선의 여러 지방을 다녔던 기행문 등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글을 선교 잡지에 기고한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카다르스 신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18년 『가톨릭 전교지』에 「조선 스케치 -진도 여행기」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카다르스 신부는 당시 제1차 세계 대전으로 프랑스군에 징집되어 중국 천진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1909년에 투르뇌 신부를 따라서 진도로 여행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조선에 관한 글을 기고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언제나 프랑스와 조선이라는 두 조국, 태어난 조국과 입양된 조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태어난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 시기하는 이방인들과 적들 사이에서 프랑스의 명예를 방어하는 것이리라. 그러면 입양된 조국 조선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나라를 보다 널리 알리고, 보다 더 사랑하게끔 하는 것이리라.¹⁷⁾

즉 카다르스 신부는 당시 유럽에 막 알려지기 시작한 극동 아시아의 작은 나라

17) Cadars, "Croquis coréens -chez les insulaires de Tjinto", *Les Missions Catholiques*, 1918, p. 43.

조선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순교자의 피로 피어난 조선 천주교회에 대한 애정과 후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각종 선교 잡지들에 자신의 글을 기고하였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그가 프랑스에 보내어 기고한 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현재까지 파악된 카다르스 신부의 기고문 목록을 선교 잡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파리외방전교회 연보』 소재 카다르스 신부의 기고문 5편>

- 1909 Fête de l'agriculture en Corée (조선의 농경 축제)
- 1917 Dans la brousse coréene 1 (조선의 벽촌에서)
- 1918 Dans la brousse coréene 2
- 1924 Une Tournée de plus, Taikou
- 1935 Ancienne capitale de la Corée: Kyengtjiyou (조선의 옛 수도: 경주)

<『파리외방전교회 회보』 소재 카다르스 신부의 기고문 1편>

- 1925 Petits confesseurs de la foi (어린 신앙 고백자들)

<『전교회 연보』 소재 카다르스 신부의 기고문 4 편>

- 1910 Les Premières impressions d'un missionnaire 1 (어느 선교사의 첫 인상)
- 1911 Les Premières impressions d'un missionnaire 2
- 1914 De France en Corée (프랑스에서 조선으로)
- 1916 Corée - Scènes de la vie de mission (선교지 생활의 단면들)

<『가톨릭 전교회』 소재 카다르스 신부의 기고문 18 편>

- 1911 Une Tournée apostolique en Corée 1-5 (조선에서의 성사 여행)
- 1912 Nouveaux chrétiens en Corée 1-6 (조선의 새로운 신자들)
- 1913 Tout seul (나 홀로)
- 1913 Un Voyage à Quelpaert 1-8 (제주도 여행기)
- 1914 De France en Corée 1-5 (프랑스에서 조선으로)
- 1916 En Tournée d'administration 1-5 (성사 여행)
- 1916 Des Nouvelles de Keiryang 1-4 (계량에서 온 소식들)

- 1918 Croquis coréens -chez les insulaires de Tjinto 1-3 (조선 스케치 - 진도 여행기)
 1920 Retour à Keiryang d'un mssionaire mobilisé 1-8 (어느 징집 선교사의 계량 귀환)
 1920 Mon église 1-3 (우리 본당)
 1923 Chez les vieux chrétiens de Corée 1-8 (조선의 구교우들 속에서)
 1925 Corée -un appel (조선 어떤 향의)
 1925 Petits confesseurs de la foi et cuillerées de riz 1-8 (어린 신앙 고백자들)
 1926 Des Nouvelles des petits confesseurs de la foi (어린 신앙 고백자들의 소식)
 1928 Mes vacances d'été 1-2 (나의 여름 휴가)
 1928 Conversion d'un mandarin coréen (어느 조선인 관리의 회두)
 1930 Conversions à Oaïkoan 1-3 (왜관에서 있었던 회두들)
 1939 Kyengtjou, la Rome bouddhique de Corée (경주, 조선 불교의 로마)

위에서 간단히 제목만 소개한 카다르스 신부의 글들은 한결같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당시 조선 천주교회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거나 조선인 신자들의 개종담, 신앙생활, 나아가 교우촌 신자들의 일상생활과 선교사들의 일상생활 등 일제 시대 조선 천주교회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지면에서 카다르스 신부의 글 전체를 다 분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카다르스 신부가 조선이라는 나라와 조선 사람들의 문화, 관습, 종교 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로 판단되는 1909년 『파리의방전교회 연보』에 실린 「조선의 농경 축제」와 1913년 『가톨릭 전교지』에 실린 「제주도 여행기」에 한정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카다르스 신부의 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되물고자 한다.

1. 선농단(先農壇) 친경례(親耕禮) 참관기

먼저 카다르스 신부의 글 중에서 가장 초기의 것으로는 「조선의 농경 축제」라

는 글이 있다.¹⁸⁾ 이 글은 순종 황제가 선농단에 행차하여 친경례를 치르는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그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¹⁹⁾ 당시 카다르스 신부는 조선에 도착한지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4월 11일의 부활절을 보내고 4월 말에 예정된 전체 조선 선교사 피정에서 부임지가 결정될 것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차에 순종 황제가 선농단에서 친히 농사짓는 모범을 보이는 큰 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구경삼아 동료 신부들과 함께 동대문 밖에 있던 선농단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1) 친경례 예식의 진행 과정

카다르스 신부의 글 중에서 선농단 친경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묘사한 부분만을 추려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전 8시부터 동문으로 이어지는 길은 엄청난 활기로 넘쳐 있었다. 경찰관들이 수많은 조선인들을 오른쪽 길로 가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나이 많은 조선인들은 높은 갓을 쓰고 흰 한복을 입고 있었다. 보다 근대적인 외관을 한 젊은 조선인들 대부분은 상투를 자른 모습이었고, 몇몇은 볼품없는 일본식 챙모자를 쓰고 있었다.

황제가 곧 조선인 판서들과 일본인 참관들, 그리고 궁궐의 내인들을 대동하고 지나갈 것이다. 뤼카 신부와 두 명의 베네딕도 신부, 그리고 나와 뫼텔 주교는 황제가 갈밭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근처에 학부대신이 지나가다가 주교를 발견하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청했다. 우리도 주교를 따라 나서자 훨씬 전망이 좋아졌다.

18) Cadars, "Une Fête de l'Agriculture en Corée", *Annales de la Société des Missions-Etrangères*, No. 72, 1909, pp. 320-327.

19)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농업이 국가경제의 가장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농사의 풍흉은 민생의 안정과 국가의 안녕에 직결되는 중대사였다. 그러므로 왕실에서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중농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백성들이 모여들어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교외의 열린 공간에서 임금이 직접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이런 목적에서 조선 시대에는 한해의 농사가 잘되기를 빌고 농민들에게 농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동쪽 교외에 만들어 놓은 왕실 토지인 적전(籍田)에 선농단(先農壇)을 설치하여 신농씨(神農氏)와 후직씨(后稷氏)에게 제사를 지낸 후 임금이 직접 밭을 가는 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이를 친경례라고 부른다. 김지영 「『親耕儀軌』해제」, 『親耕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2001), 1-2 쪽 참조

황제의 화려한 자동차가 선농단 안으로 들어 왔다. 그는 일본 장군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있었지만 그는 불쾌한 눈초리를 하고 있었다. 그의 둥근 얼굴은 조선의 상류층 여인들처럼 하얀 모습이었다. 황제는 땅에 내려서 주단을 밟고 정자로 가서 좌정하였다.

예식은 곧 시작되었다. 황금색의 요란한 장식을 한 의례 집전관이 손에 큰 종이틀 들고 밭으로 나아간다. 그는 이곳저곳으로 뛰어 다니며 각 대신들이 밭을 갈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다. 테라스 아래의 악대가 길고 둔탁한 행진곡을 연주한다. 밭둑의 악대가 이에 화답한다. 황제는 정자에서 나와서 푸른색 쟁기로 다가가간다. 황제 위에는 노란색의 높은 차양이 펼쳐진다. 그는 쟁기를 잡고 검은 소들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순간 7천명에 육박하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만세’를 외친다. 학생들은 모두 모자를 손에 들고 있다가, 박자에 맞추어 모자를 들었다 내렸다 한다.

곧 정오가 되었고 학생들은 흩어져서 풀밭에서 식사를 하였다. 우리도 솔밭을 찾아가서 주교님께서 가지고 온 식사를 들었다. 약 1시간 후에 악대들이 다시 연주를 하였고, 북이 울렸다. 황제가 정자에서 나와서 나무 몇 그루를 심었고 판서와 참관들이 똑같이 하였다. 그러자 황제가 다시 밭의 위쪽 둔덕으로 나왔으며, 의례 집전관이 그에게 내부를 노란색 천으로 장식한 작은 상자를 바쳤다. 황제는 씨앗을 한줌 꺼내어 씨를 뿌리는 동작을 몇 차례 하였다. 그러자 다시 7천의 학생들이 모자를 신나게 흔들면서 한 목소리로 ‘만세, 만만세’ 외치는 것이었다. 이제 황제는 쟁기질을 하였고, 나무를 심었으며 씨를 뿌렸다. 농부들은 흙덩어리를 으깨어 보리를 덮고는 밭둑으로 와서 줄을 지어 썼다. 황제는 그들에게 간식거리를 선물하였다. 그들은 몇 번 절을 하고는 앉아서 술을 마신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절을 하고는 물러났다. 이로써 예식은 끝이 났다.

이상에서 요약한 카다르스 신부의 1909년 선농단 친경례 참관기는 순종 황제의 친경례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자세하고 생생한 현장 보고서이다. 물론 카다르스 신부가 묘사한 선농단 친경례가 언제 거행된 것이었는지 본문 중에는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약간 불확실하다. 하지만 뫼텔 주교 일기²⁰⁾와 순종실록, 『

20) “4월 5일 오늘 황제가 40년 이래 중단된 전통 의식 즉 친히 밭을 경작하는 의식을 다시 거행하기 위해 동대문 밖으로 나갔다. 선농단은 왼쪽 홍릉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었다 2명의 베네딕도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 당시의 사건들을 기술한 각종 기록들을 검토하건대 1909년 4월 5일에 있었던 순종 황제의 친경례였음이 확실하다

순종 황제는 1년 뒤인 1910년 5월 5일에도 선농단에 행차하여 친경례를 거행하였는데, 이는 조선 왕조 최후의 선농단 친경례였다. 이 날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황성신문』에 따르면 남녀노소 수만 명이었다고 한다.²¹⁾ 그런데 뫼텔 주교는 1910년의 친경례에 대해서 1909년의 친경례에 비하여 그 예식이 성대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일기에 적고 있다.²²⁾ 이로 미루어 보면 1909년 4월 5일의 선농단 친경례는 수만 명이 운집했던 1910년의 친경례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친경례 참관기의 의의

1909년의 친경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국내 자료는 아직 발견된 바가 없다. 먼저 『순종실록』에는 한 줄로 간단히 거론하고 넘어갔으며,²³⁾ 『대한매일신보』²⁴⁾와 『황성신문』²⁵⁾ 역시 짤막한 단신으로 순종 황제가 선농단에 행차하여 직접 밭을 가는 의례를 거행했다는 간단한 사실만을 보도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의 연구에서는 순종 때 행해진 친경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²⁶⁾

회 신부들이 뫼카, 카다스 신부들과 함께 걸어서 갔다. 나는 점심 식사를 가져다 주기 위해 인력거를 타고 갔다. 울타리 밖에는 군중들이 어마어마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앞의 책, 366쪽.

21) 『황성신문』, 1910년 5월 6일

22)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앞의 책, 461쪽.

23) “동적전(東籍田)에 나가 친경(親耕)하는 의식을 진행한 다음 관경대(觀耕臺)에 나갔다.”(『純宗實錄』 순종2년 양력 4월 5일)

24) “대황제폐하께서 동적전에 거동하사 친히 밭을 가신다는 말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本月 5일 오전 10시에 둔화문으로 출궁하사 동대문 밖 선농단 동구로부터 동적전에 어림하옵서 친히 밭을 가시고 오후 4시에 환궁하옵실터이라더라.”(『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3일)

25) “대황제폐하께서 작일 상오 10시에 선농단에 어림하사 잠시 휴식하셨다가 퇴거를 쌍우에 가하여 친경하셨고, 황족 급 각부대신이 일차식 윤회로 경전후에 청의 농부들이 일제히 경하였고, 점심수자하신 후에 상묘, 금송, 창등의 묘를 친식하시옵고 각부대신 급 황족들은 각항 수묘를 종식하였는데, 각 관사립 학도와 기타 배관하는 각 사회, 신사, 인민 남녀가 만세를 숭호하였고, 동하오 2시 30분에 환어하심이라.”(『황성신문』, 1909년 4월 6일)

26) 조선 시대를 걸쳐 행해진 친경례는 모두 16차례라고 한다. 게다가 이 수치는 순종 황제 때 거행

이에 비해서 카다르스 신부의 참관기는 훨씬 더 풍부한 내용들을 알려준다. 뫼텔 주교도 자신의 일기에서 예식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카다르스 신부의 참관기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가령 이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황제와 조선인 관서들, 일본인 참관들뿐만 아니라, 각 마을의 대표로 나이 많은 농부들, 그리고 각급 학교의 남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수천 내지 수만 명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황제가 친경하는 소는 검은 소인데 푸른 천을 덮었다는 것, 그리고 황제가 받을 가는 동안 발생했던 구체적인 사건과 나무를 심고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선농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커다란 계단식 구릉 지대다.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소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으며 한쪽으로는 밭을 향해 열려 있고 황후의 무덤으로 가는 길가에 있었다.²⁷⁾ 이 계단식 구릉의 중앙부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테라스가 있는데, 여기에 황제를 위한 노란색의 화려한 정자와 몇 개의 천막이 있었다. 그리고 밭의 위쪽 둔덕에는 십여개의 쟁기가 땅에 꽂혀 있었다. 중앙에는 검은 소 두 마리가 쟁기에 매달린 채 황제의 밭갈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쟁기의 자루에는 푸른색 천이 덮여 있었다. 밭의 끝부분에는 수백 명의 늙은 조선인들이 각 마을의 대표로 도열해서 구경꾼의 제일 첫 행렬을 이루고 있었다. 그 옆에는 악사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테라스 밑에 있는 악대들의 신호를 받아서 클라리넷과 일련의 중, 그리고 엄청나게 크고 얼룩덜룩한 북을 연주할 것이었다. 농부와 악사들 뒤에는 수 백 명의 학생들이 운집해 있다.

또한 카다르스 신부는 그의 참관기에서 선농단 친경례의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된 친경례를 1908년 1회로 계산한 것이다 (김지영 앞의 글 8 쪽) 그러나 카다르스 신부의 참관기에서 보이듯이 순종 황제의 친경례는 1909년에 거행되었고 또 뫼텔 주교의 일기에 나와 있듯이 1910년 5월 5일에 다시 친경례가 거행되었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에 행해진 친경례는 모두 17차례라고 해야 옳다.

27) 이 황후는 명성황후를 말한다. 명성황후의 능은 홍릉(洪陵)으로 원래 청량리에 소재하였다. 처음에는 명성황후만을 모신 능이었으나, 1917년 고종의 승하 이후 합장하여 현재의 남양주로 옮겼다.

이 친경례가 거행된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자신의 분석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즉 통감부의 일본인 관리들이 황제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지난 40년 동안 열린 적이 없었던 선농단 친경례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일본인들이 조선을 강제로 점령하여 자신들의 이익대로 조선의 농업과 산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누가 과연 이런 장엄하고도 민중적인 관습을 재개하도록 하였을까? 사람들은 현 황제는 아무런 주도권이 없다고들 말한다. 일본인들은 전통의 재개가 좋은 정치 탓이라고 믿는 것일까? 아무도 그렇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얼마 전 황궁에서 통감부는 조선의 농업과 산업 자원들을 개발하는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야유회를 계획하였다고 한다. 통감부의 관장들은 황제에게 이 고래의 전통으로 복귀하는 행사를 강력하게 충고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이 행사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의도, 그리고 조선인들로 하여금 일본인 덕분에 불행한 일들이 막을 내렸다고 믿게끔 설득하려는 의도 같은 것이 들어 있지 않을까? 조선 백성들의 친구는 일본인들이 전쟁 직후에 약속했던 바를 지키기만 바랄 뿐이다. 사실 일본인들이 조선에 훌륭한 계획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일본인들의 말을 믿는다면, 그들은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을 문명화하고 더 이상 조선이 이웃 나라들의 탐욕에 희생되지 않도록 무장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머물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군을 격퇴한 이 승리자들의 행동은 조선을 문명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일본화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카다르스 신부의 분석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낙후된 조선의 문명화와 근대화를 외쳤던 일제가 친경례라는 조선의 전통적인 국가의례를 부활시켰다는 점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제가 문명화와 근대화라는 명목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조선의 식민지적 개발을 위해서는 조선인들의 내부적인 동의를 끌어 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제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순종 황제라는 존재가 지닌 상징성을 적절히 활용하고자 과거의 전통적인 국가의례였던 친경례를 부활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카다르스 신부가 친경례의 진행 과정에서 순종 황제가 맡던

쟁기의 날이 부러진 사건에 어떤 트릭이 숨어 있다고 해석하였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황제의 쟁기질이 막 시작될 무렵 쟁기가 충격을 받아 가운데 부분이 부러졌다. 불운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우연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어떤 트릭이 숨어 있다고 본다. 소들이 멈추었다. 사람들이 곧 새 쟁기날을 가져왔고 로마 사람들보다 덜 미신적인 황제는 이 사건을 보고 웃었다. 그는 다시 쟁기질을 시작하였고, ‘만세, 만세’하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두 이랑을 끝낸 황제는 정자로 돌아가 쉬었다. 다음으로 조선인 판서들이 각각 쟁기를 붙잡았다. 그런 후에 일본인 참관들의 차례였다. 그 순간 갑자기 이 전통적인 농경 축제가 특별한 관심과 흥미로운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였다. 과연 그들은 정복자의 냄새를 피우지 않고 황제와 대신들의 뒤를 따라서 조선의 땅을 가는 현명함을 가질 것인가? 그러나 “일본인들은 너무나 자주 변심하니, 믿는 놈이 바보다”

카다르스 신부가 말하는 ‘어떤 트릭’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전후의 맥락을 본다면, 아무런 실권이 없었던 순종 황제가 통감부의 일본인들에 의해 강요된 행사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였지만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고, 그래서 일부러 쟁기의 날을 부러뜨렸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이 아닐까 한다. 아마 이것은 입국 3개월이 채 안된 신참 선교사의 개인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동향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동료 선교사들, 특히 뫼텔 주교와 같은 인물에게서 얻은 내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자면, 카다르스 신부의 1909년 선농단 친경례 참관기는 통감부의 강압 통치 아래 놓여 있던 여러 신문들의 보도 내용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훨씬 더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제주도 여행기²⁸⁾

카다르스 신부가 본국의 선교 잡지에 기고한 조선 스케치 중에서도 1910년대의

28) Cadars, “Un Voyage à Quelpaert”, *Les Missions Catholiques*, 1913, p. 488.

것으로는 제주도 여행기가 대표적이다. 일제 시대 그가 관찰했던 사목 지방 이외의 곳을 여행하고 여행기를 기록한 것으로는 1909년의 진도 여행기와 1913년의 제주도 여행기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톨릭 전교지』에 실린 제주도 여행기는 기록의 분량이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의 풍부함에서 단연 두드러진다. 이하에서는 카다르스 신부의 제주도 여행기에 실린 내용들을 간추려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약간의 분석을 보태고자 한다.

1) 여행 경위

카다르스 신부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된 경위를 기행문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여행은 오랫동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육지와는 무척이나 다른 사람들과 사물들로 이루어진 이 섬을 매우 보고 싶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1901년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가 보고 싶었다. 결국 지난 9월에 라크루 신부와 타케 신부가 내 구역으로 며칠을 보내러 왔었고, 우리는 함께 이 섬으로 출발하게 되었다.²⁹⁾

이 말에서 간취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제주도라는 지역이 조선의 육지와는 아주 판이한 풍습과 문화를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에 카다르스 신부도 상당한 흥미를 느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미 제주도는 1901년 제주교안 때 있었던 불행한 사태 때문에 순교자들의 땅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카다르스 신부는 제주도의 이국적인 풍물을 프랑스의 선교잡지 독자들에게 소개할 목적과, 10여년 전 천주교 신자들의 학살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주도 여행에 나섰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주도 여행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제주도를 방문하였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여행기에는 구체적인 여행의 날짜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크루(Lacrouts) 신부의 서한을 통해서 보면 카다르스

29) *ibid*, p. 488.

신부가 제주도를 2차례 이상 방문하였던 것으로 나온다. 라크루 신부에 따르면 카다르스 신부는 1910년 8월 28일 경에 목포 본당의 투르뇌 신부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였으며,³⁰⁾ 다시 1912년 11월 초순 무렵에 제주도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라크루 신부는 뫼텔 주교에게 보낸 1912년 11월 16일자 서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카다스 신부가 12일 전부터 제주에 와 있습니다. 그는 홍로로 떠났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수녀님들과 함께 그를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만, 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카다스 신부는 제주에 대해 헌신적이고, 많은 사진을 찍었으며, 몇몇 기사들과 함께 그 사진들을 『미션 가톨릭』에 신게 할 예정입니다.³¹⁾

1910년의 경우에는 라크루 신부가 카다르스 신부와 투르뇌 신부의 제주도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록이므로, 라크루 신부, 타케 신부와 함께 제주도에 도착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카다르스 신부가 구체적으로 언제 이 여행기를 작성한 것인지는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지만, 잠정적으로 1912년 11월에 제주도를 여행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게다가 1912년의 편지에서 라크루 신부가 한 말의 내용도 카다르스 신부가 제주도 여행기를 작성한 의도와 어느 정도 부합한다. 왜냐하면 카다르스 신부는 여행기의 말미에서 잡지의 독자들에게 하여금 제주도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 제주도 신자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보내줄 것을 간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여행기의 구성 내용

카다르스 신부의 제주도 여행기는 크라운판형에 2단으로 작성된 30쪽 분량의 상당히 긴 글이다. 13개의 절로 이루어진 여행기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30) “저는 오늘 목포의 두 동료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쾌청한 바다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10시인 지금까지 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편역,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라크루 신부 편』, 천주교 제주교구 (1997), 255쪽

31) 위의 책, 271쪽

1. 계량에서 목포로
2. 목포에서 제주도로
3. 도착
4. 제주읍
5. 섬
6. 육지와와의 관계
7. 섬 주민들의 기원
8. 제주도의 고대 역사
9. 제주도 사람들의 성격
10. 홍로
11. 제주읍으로의 귀환
12. 여학교
13. 결론

글의 구성에서 보듯이 여행기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자신이 여행 과정에서 보고 겪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중간 중간에 동료 선교사들을 통해서 혹은 서적을 통해서 알게 된 제주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삽입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5절, 6절, 7절, 8절, 9절을 제외한 8개 절은 카다르스 신부가 사목하던 계량 본당을 출발하여 목포에서 큰 배로 갈아타고 제주도에 도착한 이후부터 제주읍과 한라산, 홍로 본당 부근을 두루 다니면서 제주도의 풍물을 구경한 내용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의 목적에서 밝혔듯이 중간 중간에 조선인 신자들을 만나서 제주교안 당시의 참상과 박해에 대한 증언들을 청취하고, 일부의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3) 여행 일정

카다르스 신부는 라크루 신부, 타케 신부와 함께 용소를 출발하여 새벽 2시 경에 목포에 도착하였다. 몇 시간 뒤에 목포를 떠나 제주도로 가는 보다 큰 배에 승선하였다. 서울에 갔다가 제주도로 돌아가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소속의 조선인 수녀 두 사람이 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였다. 밤새 항해한 배는 새벽녘에 제주도 부근에 다다랐다.

제주읍에 도착한 일행과 더불어 카다르스 신부는 이 도시에서 얼마간 머물렀다. 그의 눈에 제주읍은 바람을 막기 위해 끈으로 묶은 지붕을 인 초가집들로 뒤죽박죽인 곳이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초가집뿐이었고, 관청의 건물들은 파괴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카다르스 신부는 바닷가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작은 시골 마을의 모습에는 크게 감탄을 하였던 모양이며, 근대 문명이 휩쓸어 가버리기 이전의 목가적인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칭찬하기도 하였다.

얼마후 카다르스 신부는 라크루 신부가 있던 제주읍을 떠나 타케 신부가 있는 홍로 본당(현재의 서귀포)으로 가서 머물렀다 하지만 그 때 라크루 신부가 제주읍의 일본인 당국자들에게 초대를 받았다. 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9월 17일에 열릴 예정인 일본 황제의 사망을 애도하는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라크루 신부는 제주읍으로 돌아가고, 카다르스 신부는 타케 신부와 함께 한라산 등반 여행을 떠났다. 식물 채집이 취미였던 타케 신부는 한라산에서 진귀한 식물 표본을 채집하였고, 카다르스 신부는 옆에서 이를 구경하며 한라산 구경을 즐겼다. 홍로에서 보름 동안 묵은 카다르스 신부는 어느 노파 신자를 만나서 제주교안 당시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제주읍으로 돌아온 카다르스 신부는 제주읍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였는데, 특히 라크루 신부가 세운 신성여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였다.³²⁾ 여학생들의 교육 내용과 일상 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에 결론에서는 그들에게는 근심이 있다는 것, 즉 성당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잡지의 독자들이 그들에게 기부금을 보내주기를 간청하는 말로써 끝을 맺고 있다.

카다르스 신부의 제주도 여행기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5절, 7절, 8절, 9절에 실린 내용들이다. 5절에는 제주도의 섬 지형이 생겨난 연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 7절에는 제주도의 삼성혈 기원 신화가, 8절에는 제주도의 고대사가 개략적으로 소개되어있다. 그리고 9절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성격을 자세하게

32) 라크루 신부는 1909년 10월 18일에 초등 교육 기관으로 신성여학교 晨星女學校 를 세웠다 이 학교는 1916년 라크루 신부가 전주로 전임된 이후 재정난 등을 이유로 폐교되었다. 제주선교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편역,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천주교 제주교구(1997), 153쪽 참조.

설명하고 있다.

4) 제주도의 기원

카다르스 신부는 5절에서 화산섬으로서 제주도의 지형적인 특성을 설명하면서 화산 폭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대정군에 있는 서산은 목종 6년 5월에 용암 한가운데서 생겨났다. 이 산에는 4개의 구멍이 있었는데, 5일 동안 붉은 물이 흘러나와서 결국 벽돌 같은 돌이 되었다. 7일 동안 땅이 흔들렸다. 이 산 위에는 아무 것도 나지 않았고 유황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무도 감히 이 산을 오르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산은 바닷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노할 때면 거품이 분화구를 따라서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왔다.³³⁾

제주도 서남쪽 끝에 위치한 대정군의 서산이 화산 폭발로 생겨났다는 이 이야기를 카다르스 신부는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혹은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구체적인 연도와 날짜를 거론하고 있으며, 상세하게 정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단순히 마을의 촌로에게 청취한 이야기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카다르스 신부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기원 신화인 삼성혈 신화에 대해서도 출전을 밝히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 역사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한라산과 그 부인은 외로워서 아이들을 갖고 싶어하였다. 그들의 결합은 매우 비옥했기에, 어느 날 바닷가에 있는 큰 전나무 숲 속에서 잘 생긴 남자 아이 세 명이 세 개의 구멍에서 나왔다. 이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와 조금도 닮지 않았다. 그들은 각각 고 양 부라 불렸다. 산에서 태어났으므로 그들은 계속 산에서 사냥을 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살았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는데, 아내가 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이들 대지의 아들들은 바닷가에서 식사를 준비하다가 동쪽에서 큰 상자가 파도를 타고 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놀란 이 사냥꾼들이 도망치려 하니,

33) Cadars, *op. cit.*, pp. 509-510.

붉은 허리띠를 맨 어떤 남자가 상자 위에 나타나서 말했다. “나는 일본의 황제가 보낸 사자이다. 두려워 말라. 내 주인께서 여러분께 이 선물을 보내셨다.” 그는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세 사람은 상자로 다가가서 뚜껑을 열었다. 일본의 황제는 그들에게 하늘색 옷을 입은 세 명의 아리따운 젊은 여인을 선물로 보낸 것이었다. 또한 그 상자 속에는 망아지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인간의 음식으로 필수적인 주요 곡물의 씨앗들이 들어 있었다. 세 사람이 각각 여인을 취하게 되자, 그들의 관습도 변하였고 섬은 이제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었다. 이들 세 사람의 후손들은 조상들이 생겨난 그 곳에 작은 탑을 세우고, 세 성스러운 성씨가 새겨진 세 개의 비석을 만들어 놓았다.³⁴⁾

제주도에 관한 문헌 기록들을 찾아본 결과, 제주도의 유학자 김석익(金錫翼 1885-1956)이 간행한 『탐라기년 耽羅紀年』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³⁵⁾ 하지만 이 『탐라기년』의 초판본이 간행된 것은 1918년의 일이므로, 카다르스 신부가 이 책을 참고하였을 리가 없다. 또한 『탐라기년』에 실린 내용들도 카다르스 신부의 기록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미 1912년 이전에 제주도에 관한 여러 종류의 역사서가 퍼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카다르스 신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참고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겠지만 카다르스 신부가 제주도의 고대사에 관해서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책에서 인용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다.

5) 제주도의 역사

카다르스 신부는 제주도 여행기 8절에서 제주도의 고대 역사를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자신은 이 이야기를 『탐라지』라는 책에 실린 것을 인용하였다고

34) *ibid*, pp. 522~523.

35) 화산 폭발에 관해서는 “목종 5년 6월에 탐라산이 네 구멍으로 적수(赤水)가 5일 동안 용출하다. 그치고 그 물은 와석(瓦石)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김석익, 『탐라기년』, 제주도 교육위원회 편역, 『탐라문헌집』, 제주도 교육연구원(1976), 348쪽.) 그리고 삼성혈 신화는 위의 책, 344~345쪽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탐라기년』에는 상자를 운반해온 사자가 벽랑국(碧浪國)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지지(地志)에는 일본국이라 한다”라고 부기하고 있다

말한다. 카다르스 신부의 기록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는 구한(九韓) 중의 하나이다. 타라, 탐라, 탐모라라고도 부른다. 첫 거주 인들은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였다. 이들 후손 중 세 명이 배를 만들어 신라로 가서 신라 왕의 지배를 인정하였다. 왕은 기뻐하여, 이들에게 성주(城主), 왕자(王子), 도내(徒內)라는 호를 주었다. 얼마 뒤 신라왕의 지배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제의 왕을 섬겼다. 그 후 전 조선 땅을 통일한 고려 왕조의 창건자는 제주도를 복속하였다.

고려 원종 때 제주도는 반란을 일으켰고,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제주 부사가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서 반란군을 진압하였다. 11년 뒤 해적 김통정(金通精)은 만약 단 한번의 공격으로 제주도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육지와와의 연락이 어렵고 멀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섬을 지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는 비밀리에 선발대를 만이 구불구불하고 깊어서 함대를 숨기기 적합한 진도로 보냈다가, 불시에 제주도를 급습하였다. 대담한 공격은 승리로 끝났으며, 김통정은 5년 동안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고려왕 원종은 힘이 약했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에게 군대를 요청하였고, 이에 해적 김통정은 체포되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중국의 지배 하에 남게 되었다. 중국의 제주도 지배는 원 왕조 내내 지속되었다.

원 왕조가 멸망한 지 20여 년 후, 명 왕조가 후원하는 이태조가 조선에 나라를 세우고 제주도를 중국으로부터 되찾았다. 이태조는 탐라라는 옛 지명을 제주로 변경하였다. 이태조는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여 목사를 파견하였는데, 간혹 반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일본의 조선 병합 때까지 지속되었다.³⁶⁾

카다르스 신부가 인용하였다고 밝힌 『탐라지』라는 책자는 1651년(효종 2년)부터 1653년(효종 4년)까지 제주 목사로 있었던 이원진 李元鎭이 『동국여지승람』과 『탐라풍토록』 등의 책을 이용하여 편찬하였다는 『탐라지(耽羅志)』임에 분명하다.³⁷⁾ 왜냐하면 탐라의 지명에 대한 설명과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가 신라의 왕에게 성주, 왕자, 도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설명이 이원진의 『탐라지』 서두의 글과

36) Cadars, *op. cit.*, pp. 524-525.

37) 이원진, 『탐라지』, 제주도 교육위원회 편역, 앞의 책, 207-210쪽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에 입국한 지 겨우 5년 밖에 되지 않은 카다르스 신부가 한문으로 된 이 『탐라지』나 앞의 『탐라기년』을 읽고 인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카다르스 신부는 어디서 제주도의 역사와 신화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였을까? 추측컨대 제주 본당의 라크루 신부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앞서 인용하였듯이 라크루 신부는 카다르스 신부가 제주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톨릭 전교지』에 제주도에 관한 글을 기고할 계획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뛰어난 글솜씨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상당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던 카다르스 신부가 제주도 천주교회의 사정을 소개하는 글을 선교 잡지에 실는 것이 프랑스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기부금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라크루 신부가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신자들 중에서 한문 해독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시켜서 제주도의 역사나 기원 신화에 관한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여 번역하는 등의 지원이 있었지 않나 한다. 혹은 제주 본당을 맡고 있던 라크루 신부 자신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³⁸⁾

6) 제주도 사람들의 성격

제주도 여행기의 제9절에서 카다르스 신부는 제주도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먼저 카다르스 신부는 제주도 사람들의 성격에는 수많은 족속들의 영향이 한데 섞여 있어 혼란스럽다고 보았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녹아 있다기보다는 병치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운 기질 속에는 상호 모순적인 성향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적인 뒤죽박죽 속에서 섬 사람들의 정신적인 특성이 지닌 본질적인 부분들을 분간해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카다르스 신부가 묘사하는 제주도 사람들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38) 일례를 들자면 라크루 신부는 제주도 사람들의 구전 민요 9편을 채집하여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을 『가톨릭 전교지』에 보내기도 하였다. 뫼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동봉한 가톨릭 전교지 편집장에게 보낸 라크루 신부의 1910년 1월 21일자 편지 참조,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편역,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 (1) - 라크루 신부편』, 237-245 쪽

첫째, 쉽게 화를 내며, 성격이 급하다.

우선 그들은 성급하여 쉽게 화를 내며, 즉각 싸움으로 발전한다. 대화는 너무나 자주 주먹질로 끝난다. 모욕을 당하거나 권익에 피해를 입을 경우에 그들은 사회가 정의를 세우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이다. 자식은 아버지의 증오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³⁹⁾

둘째, 독립심이 강하여, 남의 지배를 못 참는다.

제주도 사람들은 독립심이 강하다. 특히 관청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존경심을 관청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의 역사에 등장하는 지배자에 대한 빈번한 폭동이 이를 입증한다. 일제의 조선 병합 이전 20년 동안 섬 사람들은 3년에 한번 씩 폭동을 일으켰다. 마지막 폭동은 1901년에 몇몇 선동자들이 천주교인들에 대항하여 일으킨 것이었다. 가장 초보적인 의무도 이행하지 못하던 관리들은 폭도들의 공범자였으며, 학살을 막기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셋째, 부부 간의 구속을 견디지 못한다.

부부관계의 구속을 참지 못하는 것은 제주도 사람들의 성격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모습이다. 섬 사람들이 배우자를 쉽게 바꾼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다. 물론 항상 여자에게 잘못이 있다. 선교사들은 제주도에서 천주교식 결혼 이외에는 진정한 부부간의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워한다.

넷째, 거짓말을 잘 한다.

제주도의 조선인들은 육지의 조선인들보다 더 거짓말을 잘 하는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그들에게 말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

39) 카다르스 신부는 제주도 사람들의 이러한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겨우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 어느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도둑을 맞아 화가 났다. 그들은 밤새 불침번을 서서 그 도둑을 붙잡았다. 칼을 가지고 있던 그 도둑은 도망을 쳤다. 하지만 이내 추격을 당하자 어느 방앗간으로 피신하였다. “다가오는 놈은 죽는다!” 소리쳤지만, 마을 사람 하나가 대꾸하였다. “상관없어. 우리는 네놈이 도망치게 내버려두지 않아.” 그는 용감하게 도둑을 향해 몸을 던졌다. 도둑의 상투를 움켜잡고 쓰러뜨렸다. 도둑은 발버둥을 치는 대신에 공격자의 가슴을 칼로 찔렀다. 비명 소리가 들리자 마을 사람들은 멈추고 방앗간에 불을 질렀다. 붙잡힌 살인자는 마을 촌장에게 끌려갔다. 죽은 이의 부모들이 시체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동안에 큰아들이 칼을 옷 속에 숨겼다. 촌장의 집에 찾아간 큰아들은 물어볼 것이 있다며 살인자를 보게 해달라고 하였다. 살인자가 간헐 방으로 들어간 그는 몸을 구부리고 살인자의 가슴을 확인한 다음, 핏자국이 남아 있던 칼로 가슴을 찔렀다. 그는 마을의 공론과 재판관에 의해 무죄로 석방되었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거짓말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서 자기네 생각에서 나오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거짓말은 허물과 같은 것이다. 극동에서, 무엇보다도 제주도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유린하는 진짜 암이다.

다섯째, 노름에 열광한다

노름에 열광하는 것이 또한 제주도 사람들의 성격에서 악덕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와 밭 또는 어린 자식 밖에 없는 농부도 매번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노름을 한다. 노름빚을 갚기 위해 그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딸을 팔 것이다.

여섯째, 육지와 달리 손님 환대의 풍습이 없다.

제주도에는 육지의 조선사람들이 말하는 사랑방, 즉 손님방이 없다. 뜰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방인은 성가신 존재로 취급받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길을 계속 가는 편이 낫다. 만약 쫓아 버릴 수 없을 경우에는 집안의 개처럼 부엌의 가마솥 앞에서 풀을 깔고 자라고 말한다. 제주읍 부근의 어느 골짜기에는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착했던 류구의 어느 왕자가 살해당한 장소가 남아 있다.

일곱째, 여자들의 성격이 강하다.

제주도의 여자들은 일본 여자들과 성격이 비슷하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는 육지의 조선 여자들과 동일하지만, 성격은 매우 완이하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제주도 여자들이 보이는 행동상의 자유로움이다. 그들은 어디든지 오고 갈 수 있다. 자기 집 뜰이나 내부 뿐 아니라 밭이나 길 심지어 큰 길에도 마음대로 다닌다. 간혹 섬 출신이건 육지에서 왔건 무례한 사람들이 이런 거리낌없는 태도에 착각을 해서 제주도 여자들이 도덕적인 자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한다. 즉 그 여자들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으로 상상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그들의 뺨에 빨래방망이가 쏟아질 것이다.

제주도 여자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의 구속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시집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댈다. 이런 변명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맺은 혼인을 버리고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에게도 충실하지 못하다면, 내 생각에 이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며 또한 방랑자의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여자들이 지닌 본질적인 특성은 자

기 자신에 대해 분명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육지의 조선 여자들은 보통 운명을 받아들이며 산다. 하지만 반대로 제주도의 조선 여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⁴⁰⁾

위에서 요약한 내용에 담긴 카다르스 신부의 묘사는 대체로 제주도 사람들의 성격에 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만 제주도 여자들의 성격이 활달하여 능동적이며, 고루한 인습에 얽매이는 일이 없다는 점만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카다르스 신부가 제주도의 자연 경관이 지닌 아름다움을 격찬하였던 어조와는 판이하다.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적인 기질이나 성향에 대한 카다르스 신부의 묘사는 객관적인 관찰이라기보다는, 한시적인 여행 과정에서 획득한 주관적인 인상에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천주교 복음을 전파하는 서구인 선교사로서 비서구 선교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상태를 낮게 평가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제주도에서 직접 사목 활동을 하고 있던 동료 선교사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짐작된다.

IV. 맺음말 - 선교사와 오리엔탈리즘

카다르스 신부는 과연 어떤 준거들을 가지고 조선 사회를 조망하였기에, 위에서 소개한 선농단 친경례 참관기나 제주도 여행기와 같은 글들을 썼을까? 카다르스 신부의 묘사 속에 등장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조선인, 좁게는 제주도라는 지방과 제주도 사람들은 일종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왜 카다르스 신부는 그러한 이미지들로 조선을 그리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간편한 것은 오리엔탈리즘일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저서 『오리엔탈리즘』으로 유명해진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는 18세기 서구의 근대적 사유가 낳은 산물로서 “동양과 서양 사이에 만들어진 존재론적, 인식론적 구별에 근거한 하나의 사고 방식이자 담론이며, 동양을 지

40) Cadars, *op. cit.*, pp. 534-549.

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제도화된 지식 생산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⁴¹⁾ 사이드의 논의 속에서 ‘서양이 동양 위에 던진 일종의 투영도이고, 동양을 지배하고자 하는 서양의 의지표명’으로 이해되는 오리엔탈리즘은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이해의 소산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담론 구성물의 효과로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 오리엔탈리즘 속에 표상된 동양의 이미지는 항상 유럽인들보다 열등한 존재이며, 유럽인들에 의해서 문명화의 방향으로 인도되어야 하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이드의 논의를 빌어서 카다르스 신부의 글 속에 암묵적으로 오리엔탈리즘적인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근대 개항기와 일제 시대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남긴 여행기에 대한 대부분의 분석들이 이런 오리엔탈리즘의 입장에서 그들의 기록을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간편한 해석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먼저 사이드가 제시하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들이 많다. 리차드 킹,⁴²⁾ 피터 홀름,⁴³⁾ 메리 루이즈 프라트⁴⁴⁾ 등의 주장이 그러하다. 특히 킹이 주장하는 ‘단일 방향성 테제 비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⁵⁾ 킹은 사이드의 주장이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담론에서 동양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왜 들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한다. 물론 그렇다고 킹이 오리엔탈리즘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오리엔탈리즘에는 19 세기 이후 서구 제국주의의 팽창이라는 역사적 연관성이 존재하며, 비서구 사람들을 비하하는 서구 중심주의가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순전히 문화 제국주의와 서구 중심주의로만 오리엔탈리즘을 해석하게 되면, 동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논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설득력을 갖출 수 있으나, 긍정적인 인식의 요소가 함께 들어 있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부적합

41) Edward Said, *Orienta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pp. 1-3.

42) Richard King, *Orientalism and Religion*, London: Routledge, 1999.

43) Peter Hulm, *Colonial Encounter*, London: Methuen, 1986.

44)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 London: Routledge, 1992.

45) Richard King, *op. cit.*, pp. 86-90.

하다는 것이다.

킹의 사이드 비관은 오리엔탈리즘을 단일한 방향성을 지닌 담론적 구성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킹의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의 개념적 내포를 확장할 필요가 제기된다. 즉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동양에 대한 상상의 산물로서, 동양과 동양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화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양의 신비화, 긍정적인 이미지로서의 동양 나아가서 나름대로 동양에 대한 사실적인 관찰을 토대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묘사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확장된 의미에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으로 비추어 볼 때, 카다르스 신부의 글에 담긴 조선 사회의 이미지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가 그려낸 조선 스케치는 서구 중심주의라는 단일하고도 일방적인 시각에서 조선 사회와 조선인들을 문화적인 타자로 고정시키는 서술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때로 그의 글 속에서 조선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선농단 친경례 참관기와 같은 글에서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충실하게 전달하려는 기록자의 시선도 느낄 수 있다. 여기에는 면밀하면서도 차분한 자세로 사실에 바탕을 두고 기록하려는 인류학자나 민족지학자의 태도가 들어있다고 하겠다. 당시 조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카다르스 신부의 글은 선교사의 입장에서 피선교지 주민들의 삶을 기술하는 현장 기술이라는 점에서 가치 있는 사료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이 방면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선교사들의 심층 의식에 관한 것이다. 사이드가 분석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내부에서 서양인들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카다르스 신부와 같은 선교사의 위치는 그 자의식에서 볼 때 조선의 내부에 존재하는 외부적인 존재들이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물론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대부분 의도적이었던 비의도적이었던 간에 조선 사회나, 조선인 혹은 조선의 정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은 조선에서 살다가 죽는 것을 자신들의 선교적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들의 정언적(定言的)인 자의식은 자신들을 조선의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카다르스 신부는 조선을 자신이 입양된 조국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선교사라는 존재의 이중적 타자성이라는 관점을 이해해야만 선교사들과 오리엔탈리즘의 관계를 즉자적으로 연결시키는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더 다양한 해석과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카다르스 신부의 글은 이런 작업에 적절한 사례를 제시해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정옥, 「박해기 선교사들의 한국관」 『교회사논문집Ⅱ』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김지영, 「『親耕儀軌』 해제」 『親耕儀軌』 서울: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1~2쪽.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전주: 천주교 전주교구, 1998.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편, 『교구연보 1878-1940』 부산: 천주교부산교구, 1984.

셀레스뎡 꼬요스, 『죽음의 행진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서울: 분도출판사, 1983.

윤선자, 「한국전쟁과 교회의 피해」, 한국사목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2』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163쪽

이필영, 「초기 기독교선교사의 민간신앙 연구」, 한남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편, 『서양인의 한국문화 이해와 그 영향』 대전: 한남대 출판부, 1989.

정동훈,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 천주교회와 신사 참배에 관한 고찰」 『교회사연구』 제1집 1996.

정연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서양인의 한국관」 『역사와 현실』 34호, 1999.

제주도 교육위원회 편역, 『탐라문헌집』 제주: 제주도 교육연구원, 1976.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역,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 라크루 신부 편』 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1997.

_____,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1997.

최석우, 「재한 천주교 선교사의 한국관과 선교정책」,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부, 1984.

_____, 『한국교회사의 탐구 III』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뫼텔 주교 일기 4』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 Cadars, “Croquis coréens -chez les insulaires de Tjinto”, Les Missions Catholiques, 1918.
- _____, “De France en Corée”, Les Missions Catholiques, 1914.
- _____, “Les Premières Impressions d’un Missionnaire”, *Annales de la Propagation de la Foi*, 1910.
- _____, “Retour à Keiryang d’un Missionnaire Mobilis é”, *Les Missions Catholiques*, 1920.
- _____, “Un Voyage à Quelpaert”, *Les Missions Catholiques*, 1913.
- _____, “Une Fête de l’Agriculture en Corée”, *Annales de la Société des Missions-Etrangères*, No. 72, 1909.
- Edward Said, *Orienta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 London: Routledge, 1992.
- Peter Hulm, *Colonial Encounter*, London: Methuen, 1986.
- Richard King, *Orientalism and Religion*, London: Routledge, 1999.

- | | |
|--|----------------------|
| ● 투고일: 2003. 7. 9 | ● 심사완료일: 2003. 8. 20 |
| ● 주제어(key word): 천주교 선교사(french missionary), 카다르스(Cadars),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일제시대(colonial period), 파리외방전교회(Société des Missions-Etrangères de Paris) | |